

# 사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도 사료기술인력 확보가 절실하다



신 상 민

(주)제리퍼드·(주)한갈바이오 대표이사

요즘 대세인 자유무역의 바람은 당연히 축산업 및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현실은 축산선진국들과 축산물은 물론 배합사료 조차 자유무역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또한 확대될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축산업 조차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한 고려보다도 전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낙농부문의 착유우 두당 생산성은 세계적으로도 명실상부한 상위권이라고 하나, 양돈부문은 모든 두당 생산성이 양돈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뒤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나마 산란계부문과 계열화가 상당히 진척된 육계부문 또한 쉽게 극복하기에 벽찬 생산성 격차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단위생산비 역시 어느 축종도 생산성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들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의 이유 중

하나가 근시안적인 육성 및 투자에 기인한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 (1) 축산업을 이끌고 선도하는 면보다는 구제하고 보상하는 측면에서 정책이 발휘된 것도 요인일 수 있고
- (2) 양축· 양계농장의 경영과 사료공장의 경영에 사업적 요소와 더불어 축산업의 미래를 담지 못한 측면도 있다하겠습니다. 투기적인 접근등이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 (3) 자체 기술 인력을 양성· 확보함에 소홀하거나 지속하지 않았음도 그 책임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가축과 가금을 사육하는 축산업이 3D산업이란 인식으로 대다수의 농장들에서는 인적 자원의 확보가 어려워졌으나, 가족경영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한 축산선진국에 비하여 가축 사육관련 기술의 축적에서도 상당부분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다수 사료업체들 역시 경쟁력 있

는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익창출 노력에 비하여 현저히 소홀했고, 전문 기술인력 양성에 갈음할 만한 노력도 다소 미흡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면 지나친 표현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만 적자생존의 냉엄한 현실을 두고 본다면 수긍될 듯 합니다.

우리는 피같은 땀을 그 흘린 양과 더불어 땀의 결실인 생산성도 동시에 보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제가 모델로 삼고픈 정도로 노력하며,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하며 축산 및 사료산업을 반석으로 올리는 업체들이 많음을 알고 있으며 그런 업체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길고도 역센 표현을 한 것은 저희의 경험을 되새겨 보고자 한 탓입니다.

(주)체리피드와 (주)한길바이오는 육용종계 및 육계(삼계, 토종) 그리고 육용오리사료를 취급하며 체리부로에 공급하는 양계사료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양계사료 전문회사입니다.

지난 2008년 이전엔 배합사료회사들로부터 저희가 필요한 사료를 전량 구입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봄철 이후부터 자가 사료공장을 가지게 되었고, 자체적으로 육계 및 종계용 사료를 제조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육계와 육용종계의 사육에 쓰일 배합사료라는 것을 평범한 기술력으로 쉽게 보고 덤벼 든 대가가 쓰라렸습니다.

불량한 사육성적이 생기면 그것이 병아리의 품질 때문인지 또는 사료의 품질 때문인

지 그 원인을 밝히기에도 참으로 벅찬 경우가 있었고 원인을 정확히 찾아낸다 하여도 사후에 원인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전에 우수한 병아리를 생산토록 종계를 관리하고 사료를 설계해서, 시작부터 우수한 성적을 내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여 우수한 성적을 내도록 사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축산업에 제대로 접근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사료라는 것이 사료회사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최종산물이지만 아울러 축산업(양계)의 원료(중간재)이며 소비자를 생각하는 고기를 만들어내는 사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료산업에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공급된 사료의 육고기 생산효율, 종란의 생산성 등 사육생산성과 연관지어 영양을 설계하고 원료를 선택하고 공정을 갖추자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을 재확인한 후 2009년에는 수의기술의 자문용역으로 시작하여 체계적인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그간의 결과가 매우 희망적이었습니다.

이후 2011년 초에 이르러 그간의 기계·설비에 투자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포물리의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얻음과 동시에 가공기술의 향상과 축적도 생기는 등 상당히 고무적인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병아리의 유전적 특성과 그 사육방법이 지난 90년대 이전과 달라진 지금에도 이전

의 육계사양기술과 사료제조기술로 안일하게 접근한다면 결국 후퇴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새로운 열정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의 댓가는 비싼 수업료로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시스템상 필드의 반응이 왜곡 또는 가공되지 않은 채 전달되는 장점을 가졌고 그 피드백에 정확히 반응하는 조직을 갖추는 노력의 결과가 상당합니다.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하고 상식에 가까운 기초적인 내용들이었지만, 그러한 요인들이 생산성과 생산비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품질과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산업을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지만 적지않은 시간동안 보고 듣고 느끼며 아파한 것들이 없지 않기에, 이런 소회를 말하며 마무리하고 제언하고자 합니다.

- (1) 원료들의 신선도, 원료별 가공적합성 여부, 원료들의 영양적 가치와 사료적 가치의 적합한 평가, 사육연령별 사료 중 각종 영양소의 함량과 그들 간의 균형, 기능성 첨가제 원료들의 선택과 조합, 배합사료 제조공법의 적합성 등등 모두가 하나같이 중요한 요소들임을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 (2) 이전보다 험난할 FTA 상황의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사료기술에 정통하

고 명실상부한 전문 인력을 지금부터라도 당장 육성하거나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서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국공립대학마저 농과대학 및 축산대학 그리고 축산학과 및 낙농학과라는 명칭이 다른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하더라도, 교육내용은 대한민국의 축산식품 생산기술 경쟁력고취에 기여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의 아쉬운 측면이 있으며 그 결과가 현재 인력 양성부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공자들의 영역이 축산식품이 아닌 인체 의료용 장기(부속)이나 약품 생산 등에 편중되어가는 유감스러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Livestock Production and Veterinary Sciences와 기타 응용부문의 별도 커리큘럼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술 인력이 필요한 사료업체는 적극적으로 인력육성개발비의 일부를 감당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차원이라면, 사료협회 사료기술연구소를 축종별로 Professional한 사료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의 기능을 덧붙이는 것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감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